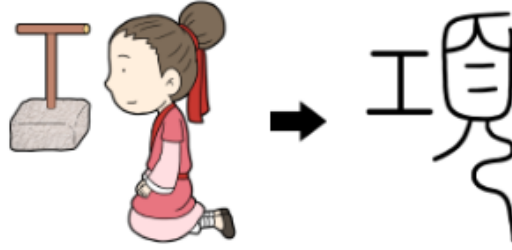


3(2)
-
471

회의문자①



項

항목 항:

項자는 '항목'이나 '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項자는 工(장인 공)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工자는 땅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項자는 본래 사람의 목 부위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돌덩이에 막대기를 꽂아놓은 모습으로 그려진 工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목' 부위를 표현하고 있다. 項자는 본래 '목'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지금은 주로 문장에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조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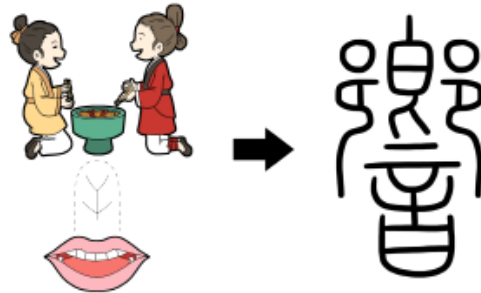
소전

項

해서

3(2)
-
472

형성문자①



響

울릴 향:

響자는 '울리다'나 '메아리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響자는 鄉(시골 향)자와 音(소리 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鄉자는 밥을 함께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響자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거나 진동함을 뜻하지만, 사물의 반응이 되돌아온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산에서 고함을 지르면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여파가 멀리까지 미치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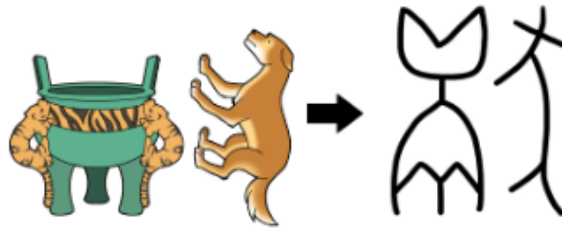
소전

響

해서

3(2)
-
473

회의문자①



獻

드릴 헌:

獻자는 '드리다'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獻자는 虡(술 권)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虡자는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술'을 뜻한다. 고대에는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술이 신성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었다. 이렇게 신성함을 상징하는 술과 犬자가 결합한 獻자는 술에 제물을 넣어 바친다는 뜻이다. 그러니 獻자에 쓰인 犬자를 반드시 '개'로 해석하기보다는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Seal script for 獻

갑골문

Seal script for 獻

금문

Seal script for 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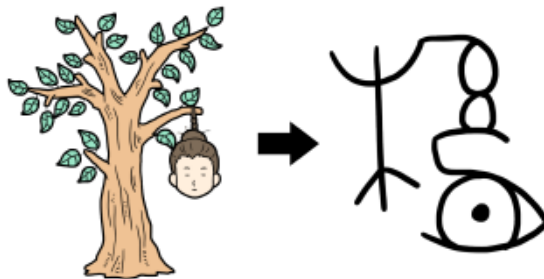
소전

Seal script for 獻

해서

3(2)
-
474

회의문자①



懸

달[繫]
현:

懸자는 '매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懸자는 縣(고을 현)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縣자는 나무에 머리를 매달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금문 나온 縣자를 보면 나무에 눈이 매달린 縣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금문과 소전에서는 縣자가 '매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縣자가 '고을'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해서에서는 여기에 心자를 더한 懸자가 '매달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Seal script for 懸

금문

Seal script for 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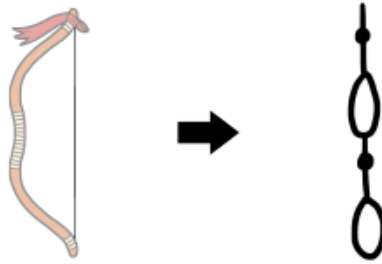
소전

Seal script for 懸

해서

3(2)
-
475

상형문자①



玄

검을 현

玄자는 '검다'나 '검붉다', '오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玄자는 ㄴ(돼지머리 두)자와 ㄹ(작을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玄자는 활과 시위를 함께 그린 것이다. 그래서 玄자의 본래 의미는 '줄'이나 '시위'였다. 전통적인 활시위는 옷나무의 진액이나 송진을 발라 현의 수명을 길게 했다. 이때 가공된 활시위의 색깔이 검은빛을 띠었기 때문에 玄자는 후에 '검다'나 '검붉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玄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여전히 '활시위'나 '줄'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玄자가 '검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弓(활 궁)자를 더한 弦(시위 현)자가 '활시위'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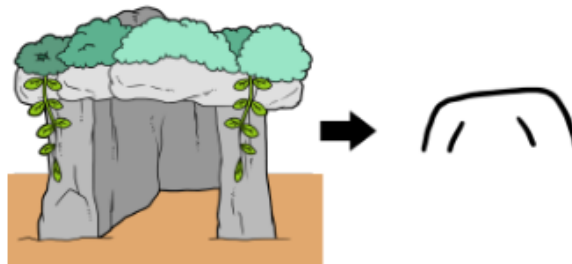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476

상형문자①



穴

굴 혈

穴자는 '구멍'이나 '동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穴자는 산속에 있는 '동굴'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穴자를 보면 지붕처럼 생긴 덮개와 八(여덟 팔)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굴 입구와 주위에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동굴은 깊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穴자는 '구멍'이나 '어둡다', '심오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 때는 인류가 동굴에서 거주하기도 했기 때문에 '집'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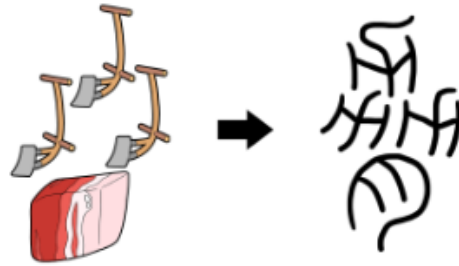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477

회의문자①



脅

위협할
협

脅자는 '위협하다'나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脅자는 𠂔(합할 협)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脅자는 力(힘 력)자가 3자나 쓰여 있어 매우 위협적이면서도 위기감이 느껴지는 글자이다. 그래서 여기에 月자가 더해진脅자는 누군가의 신체에 여러 힘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위협하다'나 '오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脅자는 月자가 좌측변에 위치한 脇(위협할 협)자가 쓰이기도 한다.

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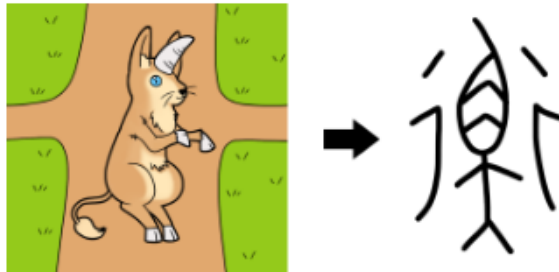
소전

脅

해서

3(2)
-
478

회의문자①



衡

저울대
형

衡자는 '저울질하다'나 '준척',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衡자는 行(다닐 행)자와 角(뿔 각)자, 大(큰 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角자와 大자는 뿔이 달린 소를 표현한 것이다.衡자의 금문을 보면 사거리에 뿔이 달린 소가 𧰨 그려져 있었다.衡자는 본래 길을 갈 때 소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뿔에 긴 나무를 묶어 놓았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이전에는衡자가 '뿔막이 나무'나 '쇠코뚜레'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뿔에 매달은 평평한 나무가 저울을 닮았다 하여 '저울'이나 '평평하다'나 '고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衡

금문

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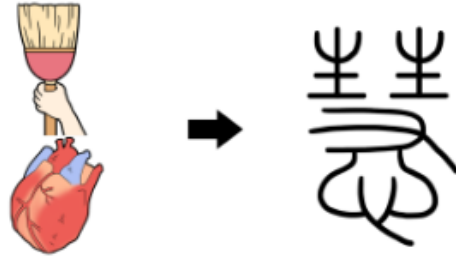
소전

衡

해서

3(2)
-
479

회의문자①



慧

슬기로울
혜:

慧자는 '슬기롭다'나 '충명하다', '사리에 밝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慧자는 慧(비 혜)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慧자는 손에 빗자루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빗자루를 손에 쥐는 모습을 그린 慧자가 '지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나 충명함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을 글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慧자는 빗질하는 모습을 그린 慧자를 응용해 빗질할 때 햇살에 먼지가 반짝거리듯이 사람의 충명함이 반짝거린다는 뜻을 표현했다. 매우 충명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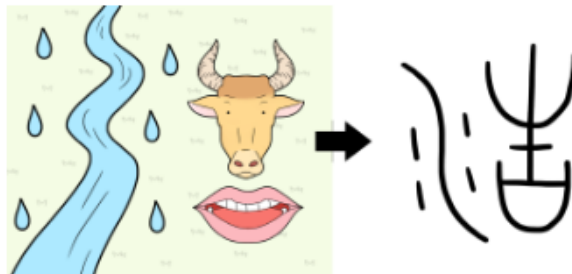
소전

慧

해서

3(2)
-
480

형성문자①



浩

넓을 호:

浩자는 '넓다', '광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浩자는 水(물 수)자와 告(알릴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告자는 소를 잡아 신에게 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고→호'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浩자에서 말하는 '넓다'나 '광대하다'라는 것은 큰 강이나 호수의 크기를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浩자는 단순히 '넓다'나 '크다'라는 정도를 넘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아량을 뜻하기도 한다.

浩

소전

浩

해서